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 비전(Vision)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

### 교육목표(Goals)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평생자기계발 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 02 대학소식

- 이화여대 학장의 네번째 편지
- 제1회 2022 Future Ready Research Festival
- 제1회 '이화여대 학술상' 선정
- 202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워크숍 개최
- 본교, 독일 Rostock 대학과의 국제협력 강화
- 2022-2학기 이삭강좌
- 이화성탄의 집 점등식 개최
-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 운영 시작
- 홈페이지 개편, 의과대학 홍보 채널 다양화

## 05 학생소식

- 이화의대인의 축제
- 행림제
- 배지연 박사과정생 김영
- 학회 우수연재상 수상
- 대한의학유전학회
- 추계학술대회
- 최우수구연상 수상
- 해부학 교실 박소현
- 학생 인터뷰

## 07 기획기사

- 의과학연구소
- 정성철 교수 인터뷰
- 이화여대 의과대학
- 강승지, 임서현 학생
- SCIE급 학술지
- 연구논문 게재

## 09 특집기사

- 2022학년도 의과대학
-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 (White Coat Ceremony)
- 2022학년도 이화여대
- 멘토-멘티의 날 개최
- 메디칼타임즈 제2회
-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 최우수상 이은서 학생
- 인터뷰

## 11 동문소식

- 오해숙 동문, 이대서울
- 병원에서 '초대 사진전'
- '자랑스런 이화의인'
- 박예스더상
- 유신애 동문(18회) 선정
- 제10회 성천상 시상식 개최
- 최영아 센터장에 상패 수여
- 기부소식

## 13 교수인터뷰 & 강연

- 신입교원
- 김이준교수(환경의학교실)
- 퇴임교원
- 최규홍교수(안과학교실)
- 심봉석교수(비노기과학
- 교실)

## 16 교수소식

- 교수 수상 및 업적

## 18 의과대학 기금 안내

# 대학소식

## Future Ready, Ewha Medicine!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화의대를 위하여!

사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께,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새 소식들로 채워진 네 번째 편지 올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의학교육 선진화와 연구 활성화 관련 소식입니다. 의학교육을 체계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설립된 '이화 의학교육센터(Ewha Medical Education Center; EMEC)'에서는 매달 의학교육세미나와 수차례의 교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교과과정 프로그램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구 활성화 관련하여, 본교가 전폭적으로 육성하는 '프론티어 10-10' 연구 사업에 의과대학 중점 연구 분야로 '웰에이징연구단', '재생의료연구단'이 선정되었고,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학교수 초빙 및 중점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우리 의과대학의 선도적인 의학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을 독려하고자 '이화의대학술상'을 신설하였고, 직급별로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아올린 강덕희 교수, 김휘영 교수, 송태진 교수가 1회 수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학사 일정 관련 소식입니다. 2022년 2학기는 코로나19로 진행 못했던 대면 강의가 3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는 물론 학생 자치활동 및 대학 행사 등 모든 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모처럼 활기와 에너지 넘치는 의대 캠퍼스 생활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임상의학으로의 진입을 축하하는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를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하였고, '멘토-멘티 프로그램', '이화 행림제', 각종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신진연구자인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위한 '제1회 리서치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최우수연구상의 분자과학과 박지혜 석사과정생을 비롯한 4명의 우수 연구상, 10명의 우수연구 포스터상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대학원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관련 소식입니다. 우수 대학원 학생 유치를 위해 신설한 '의과대학 대학원 장학금' 기금에 의과대학 동창 선생님과 미국 지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과 사랑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 의대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더욱 신나고 즐겁게 학습하고 교수님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고도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도 Future Ready Ewha Medicine 홍보 전략 하에 홈페이지 개선, SNS 개설 등 이화의대만의 우수성을 알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해주시는 동창회와 더 활발히 소통하며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막중한 책임 가운데 의과대학을 대표해 활동한 경험들은 제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세히 들여다볼수록 우리 의과대학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담고 있는 최고의 학교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학장이라는 집사 직분은 과분할 정도로 영광된 임무였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지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이화의대 가족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의과대학 학장 하은희 드림

## 제1회 2022 Future Ready Research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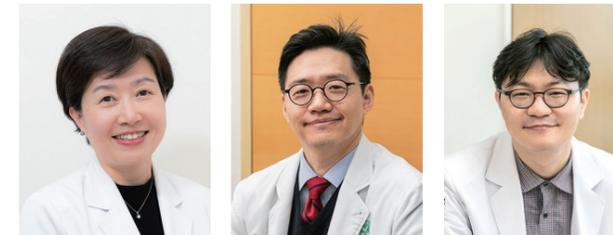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생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대학원생 연구페스티벌, '2022 Future Ready Research Festival'을 개최하였다. 이는 의과대학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연구결과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과 의학과 일반대학원생, 의학 관련 융합전공 및 협동과정 재학 대학원생(시스템헬스융합전공, 컴퓨터의학협동과정, 유전상담학협동과정)이고, 의과대학 학부생도 지원가능하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층 라운지에서 연구 포스터가 전시되었고 11월 30일 게임홀에서는 우수 연구 발표 및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하은희 학장은 축사를 통해 의과대학 대학원 학생들을 오늘 행사의 주인공으로 칭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에 정진할 것을 응원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연구상 후보에 오른 의과대학 대학원 학생들의 우수연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의과대학 대학원 의과학과 김도연, 박정은, 박지혜, 김의정, 김수민 학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며 자신의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었고, 시상을 위한 심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다음 순서로 편도유래 줄기세포(Tonsil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연구를 주제로 한 정성철 의과학연구소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분자과학교실 박지혜 학생(지도교수 안영호)이 최우수연구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도연, 박정은, 김의정, 김수민 4명의 학생이 우수연구상을, 김미진, 김솔아, 남유화, 김희연, 김세향, 천인영, Tran Nguyen Thuy An, 안이경, 김은지, 이채정 10명의 학생이 우수연구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Future Ready Research Festival

은 하은희 의과대학장의 총평과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의학과 4학년 방윤지 학생기자,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 제1회 '이화의대학술상'에 강덕희 교수, 김휘영 교수, 송태진 교수 선정



강덕희 교수 (내과학교실) 김휘영 교수 (내과학교실) 송태진 교수 (신경과학교실)

지난해 의과대학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의학 연구로 이화 의대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교원을 표창하기 위해 신설된 '이화의대학술상'의 제1회 수상자로 강덕희 교수(내과학교실), 김휘영 교수(내과학교실), 송태진 교수(신경과학교실)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22년 하계전체교수회의에서 하은희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의과대학 교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덕희 교수는 의과대학 재직 교원 중 H-index 지수가 가장 높은 교수로서 H-index 57, FWCI 1.59 (전세계 평균 1.0), 14년간 SCI(E) 논문 87편 (주저자 논문 35편)을 발표했다. 대표논문으로 신장연구 분야에서 가장 높은 Impact factor를 가진 Journal of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IF: 10.12)를 제출하여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휘영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IF 지수가 가장 높은 교수로서, H-index 21, FWCI 1.09, 4년 5개월 간 SCI(E) 논문 30편 (주저자 논문 15편)을 발표하였으며, 대표논문으로 Journal of Hepatology (IF: 30.083)를 제출하여 우수한 연구실적을 인정받았다.

송태진 교수는 단기간 동안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1년 5개월 간 SCI(E) 논문 45편 (주저자논문 29편) 발표하였으며, H-index 25, FWCI 1.52, 주저자 논문 IF 합 164.782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화의대학술상은 2022년 4월 (사단법인)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의 후원으로 제정됐다. 수상자는 최근 5년 동안 연구 실적이 탁월하고, 의학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본교 전임교원 중 의대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의과대학 정보관리부〉

## '202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워크숍' 개최

이화의대 Vision, 학사·인사제도, 교육과정, 의사 국가고시, 문항 출제 등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대상 워크숍이 지난 11월 7일 이화의학교육센터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의과대학 교육 및 교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책무성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COVID-19 시기 신입교원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교원들도 초대하여 진행되었다. 내과학 송은미 교수, 흉부외과학 신수민 교수, 정형외과학 박인 교수, 환경의학 김이준 교수 등 신규임용 교원 8명과 COVID-19 시기 임용된 교원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이화의 탄생 Ewha Medicine(하은희 의과대학장), ▲의과학연구소 소개(정성철 의과학연구소장), ▲학사 안내 및 교원종합평가(정성애 교무부학장, 정혜선 교무차장), ▲의과대학 교육과정 소개(양형중 이화의학교육센터 운영위원), ▲CPX-의사 국가고시 실기 변경(권형주 CPX위원장), ▲CBT 소개 및 시험문항 출제(이혜진 임상교무부장)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날 참석한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우리는 Future Ready Ewha Medicine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교수님들과 학생이 있다. 우리 함께 이루어 가지"고 말했다.

〈이화의학교육센터 정소미 교수〉

## 본교, 독일 Rostock 대학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2022년 9월 20일(화) 독일 Rostock 대학의 Wolfgang Schareck 총장, Michael Paulus 국제교류처장이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본 대학에서는 하은희 학장, 정성애 교무부학장, 정성철 의과학연구소장, 편육범 의학교육센터장, 김관창 기획부장, 윤혜전 기획부처장이 참석하였다.

하은희 학장의 의과대학 소개 및 환영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및 서울병원 방문, 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수행 참관, 본교 4학년 학생들과의 만남, 각 의과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방문을 통하여 이화의 역사와 정신을 전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두 대학은 학생 교류 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구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과대학 정보관리부〉

2022-2 이삭강좌 혁신과 창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AI thinking: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2022학년도 2학기 이삭강좌가 계림홀에서 10월 26일 오후 5시에 '혁신과 창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AI thinking: 인공지능 vs 인간지능'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약 140명의 본과 1, 2학년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강의를 맡은 여현덕 교수는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 재직중이며,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법 설계자이자 스위스 다보스 포럼 수석자문, 차세대리더 선발위원 등을 역임한 4차 혁명 트렌드와 인문경영학, 인지과학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번엔 진행된 강좌에서는 컴퓨터와 인공 지능의 탄생, 인공지능-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의 작동원리와 유형, AI Storytelling : AI thinking의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의학분야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음성 간호의무기록의 구축하는 시스템, AI와 의사가 협업하여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최근 4P medicine 중 하나로 personalized medicine이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환자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하고, 병리/영상 분야의 진단 등 의학분야에 확대하여 적용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정의"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신기술이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슬기로운 일은 "인공지능을 적용할 지점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앞으로 현재의 의과대학생들이 10년 뒤 마주하게 될 현장에서 의사로서 인공 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 외에도, "틈틈이 AI기술을 어떻게 의료분야에 서 문제 정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임을 언급하며, 협업지능(CQ)을 통해 미래 의료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쳤다.

〈의학과 2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이화성탄의 집 점등식 개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10



12월 7일(수) 오전 8시 50분 이화성탄의 집 점등식이 진행되었다. '이화성탄의 집'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화에 따뜻한 사랑의 빛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로, 신촌캠퍼스에 이어 마곡캠퍼스를 환히 밝혔다. 정성에 교무부학장의 개회로 진행된 점등식은 최문영 원목의 기도, 하은희 학생의 인사말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과대학 운영위원 교수 및 직원, 학생까지 한자리에 모여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

구절을 읽으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가난하고 병든 조선의 딸들을 위해 세워진 보구녀관에 기여한 초대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아기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구와 치료에 귀한 소명을 다할 것"이라는 최문영 원목의 축도가 이어지며 성탄의 집 점등식이 마무리되었다.

〈의학과 2학년 권나현 학생기자〉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 운영 시작

2022년 3월 이화여대,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이화의료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하는 전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화-SCL 환경건강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9월 5일,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Clinic in Korea, CHECK)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전했다.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은 미세먼지,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아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클리닉이다. 센터장인 소아과학교실 이정원 교수(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이화여대 소아과학교실과 환경의학교실은 일상의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소아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아이들의 환경건강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데일리〉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 SNS 채널 신설 등 의과대학 홍보 채널 다양화



최근 의과대학은 모바일 웹서비스 환경에 맞춰 다양한 교내 소식들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화여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SNS 홍보 채널을 신설했다. 2022년 12월에 개편된 의과대학 홈페이지는 사용자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반응형 페이지로 구축됐다. 또한, 지난 가을부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기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여 의과대학의 활동을 실시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본격적인 온라인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화합과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에는 주요 공지사항과 사용 빈도가 높은 메뉴의 배너, SNS 콘텐츠들이 전면 배치되어 더욱 효율적인 홍보 기능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화 의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여대 Youtube



이화여대 Instagram

〈의과대학 정보관리부〉

학생소식



3년만에 재개된 이화의대인의 축제-행림제



2022년 10월 13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축제인 '행림제'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단체활동이 축소된 지 3년 만이다. 합창동아리 '코엠'의 공연을 시작으로, '인프라레드'와 '야마무스'의 밴드공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춤동아리 '8초'의 공연이 이어졌다. 코엠 기장 정운서 학생(의학과2)은 "의과대학 공부를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동아리가 좋은 활력소가 된다"며, "연습하느라 고생한 동아리원들, 그리고 보러 와 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본과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축제 하루 전에는 의과대학과 병원을 잇는 통로에서 그림동아리 '그리민'의 전시가 진행되었다. 기장을 맡고 있는 임나은 학생(의학과2)은 "이번 여름 미술 수업에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행림제에 참여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함께 그림을 즐겨 주신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이번 행림제가 학생들이 이화의대인임을 느끼게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응원의 의미로 학생회에 사랑의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의학과 2학년 정상현 학생기자〉

배지연 박사과정생 (내과학교실, 이대목동병원 전임의), 감염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대학병원 내 항균제 관리 프로그램 시행 효과성 규명



이대목동병원은 배지연(내과학 박사과정생,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전임의) 대한감염학회 · 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배 전임의는 '대학병원에서 항균제 관리 프로그램 시행 효과(The effectiveness of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implementation in a single university medical center)' 연구를 통해 항생제 스텐어드십 프로그램 효과성을 규명했다. 배 전임의는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에서 혈액투석과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받는 입원환자들에게 201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스텐어드십 프로그램 중재 효과를 분석했다. 항생제 스텐어드십 프로그램은 감염 전문 의사, 감염 전문 약사 등 여러 전문가가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만큼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감염내과

의료진, 약제팀, 이화여대 약대가 협업해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원내 사망률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배 전임의는 "다학제 협업을 통해 항생제 스텐어드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모든 환자들이 최적의 항생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EDICAL Observer〉

유보은 석사과정생, 대한의학유전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구연상 수상

대학원 유전상담학 협동과정 석사논문 연구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전상담 유효성 평가 Effectiveness of Genetic Counseling using Metaverse"(학생 유보은, 지도교수:허정원, 공동연: 김아랑, 문혜성, 소민경, 정태동, 이경은, 문병인)가 2022년 11월 10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의학유전학회 추계학에서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허정원 교수〉



〈유보은 학생〉

유전상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유전 질환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유전상담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제한된 진료시간 및 부족한 인력 등으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유 간호사는 연구에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룹 유전상담을 시행, 효과성과 만족도를 확인했다. 연구 대상자는 2022년 4월 15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이대목동병원에서 유방암 또는 난소암을 진단받은 그룹 45명, 암 가족력이 있는 그룹 43명, 유전상담 교육에 관심 있는 그룹 43명 등 총 131명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가상공간으로 접속해 유전성 유방암에 관한 교육을 약 20분 받고, 교육 후 1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 종료 후 메타버스를 통한 유전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교육 후 지식도는 교육 전 지식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유보은 간호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전상담 교육은 효과적이었고 만족도도 높았다.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은 살리고, 집중력 저하 및 인터넷 연결문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효과적 유전상담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이언스앤디뉴스〉

# 학생소식

##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 해부학교실 박소현 석·박사통합과정생 인터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은 메디컬 융복합 연구가 가능한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임상 의사에게 기초의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 활동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박소현(일반대학원 의학과 해부학교실 석·박사통합과정)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Q** 박소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된 연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의과대학 2021학년도 졸업생이며 현재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박소현입니다. 작년에 이화여대 병원에서 인턴을 마쳤고, 올해부터 이화여대 해부학교실 기초 전공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제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근육의 부착부위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각종 의학적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는 휴먼 디지털 트윈(Human digital twin)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체의 표준을 구현하는 것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인체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인 근육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근육 부착부위에 대한 위치, 면적 등이 상이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부착부위는 근육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는 작용점으로, 부착부위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움직임 또한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체를 대신하는 트윈을 구현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육 부착부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육안 해부학과 공학을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기초 의학이나 융합형 의과학자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없었을 거 같은데, 이러한 진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A** 저는 본과 공부 중 해부학을 배우는 1학년 1학기의 공부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시험도 많고 본과 첫 학기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학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당시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해부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부학교실에 계시는 지도 교수님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턴을 하면서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지도 교수님께 정말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융합형 의과학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A**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스로 설계한 연구 계획서를 준비해야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 발

표 면접도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계획한 연구를 발표하는 과정도 있는데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에 선정되면, 학교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흥원이 사업계약을 맺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아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석사 1학기생이 연구 책임자가 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 막막하게 느끼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크고, 그 외에도 다른 연구자, 전문가들과 모이는 워크샵에 참여할 기회도 있고 연말마다 평가도 진행하면서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아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저와 같이 기초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학부생, 임상 전공의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Q** 어떤 때 이러한 진로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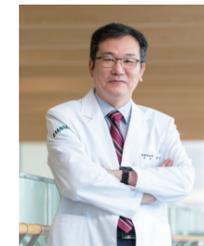
**A** 저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꼭 해결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어렵고 막막할 때도 많지만 연구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들이 명확해질 때, 지적 호기심이 해결될 때, 연구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로를 선택한 이유 중에 연구 외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부학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는데, 현재 본과 1학년 학생들 수업에 참여하면서 질문도 받고 현미경 수업 일부는 주도하며 학생들과 소통할 때 또 보람을 느낍니다.

**Q** 기초의학은 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는 아니다 보니, 흥미가 있어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A** 지도 교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지도 교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저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기초 의학이라는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기초의학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또는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의학 분야에 너무 거리감을 가지지 말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진로를 탐색해보고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의학을 전공하며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사업'을 본교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선배로서, 제가 스타트를 잘 끊어볼 테니 많은 후배님들도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의학과 4학년 방윤지 학생기자)

# 기획기사 | 의과학연구소 Ewha Medical Research Institute



(의과학연구소장 정성철 교수)

현대 의학은 새로운 영역으로 세분화,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학과 기타 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의과대학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학연구의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5년 9월 의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 의과학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학생 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12대 소장을 맡고 있는 정성철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의과학연구소는 의과대학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 조직이며 의학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실험 공간, 실험 장비, 동물 실험 지원, 실험동물실 운영 등의 업무와 연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의과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Q**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우리 학교 의과학연구소만의 특색은 어떤 것인가요?

**A** 연구실의 규모로 따지면 지하 2층에 약 3000㎡면적에 실험동물실이 약 1000㎡(330평)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현미경과 차세대 유전체 분석 시스템 등을 비롯한 최신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실에서는 공동연구장비와 지원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의 차별화라기보다는 의과학연구소와는 별도로 생리학교실 이지희 교수님께서 연구책임자로 있는 염증 및 암 미세환경조절 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등 대형 연구 조직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센터로서 이화-SCL 환경 건강선도 연구센터 외 4~5개의 연구센터가 연구 주제별로 교내의 연구자 간 공동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현재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나 연구는 어떤 것인가요?

**A** 이화여자대학교 전체의 발전 방향인 Ewha Vision 2030+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연구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프론티어 10-10 사업'에 웰에이징 연구소(Well-aging Research Institute)와 이화재생의학연구단이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의료 빅데이터×AI 연구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 암 연구에 대한 오랜 노하우와 학문적인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어떤 학생들에게 연구자의 길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A** 모든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즉 모든 학생들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연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wet lab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나 AI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dry lab 기반의 연구도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고 흥미 있는 분야의 연구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학문적인 기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인지 등의 '미충족 수요'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치료에 사용되지만 기전을 확실하게 모르는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아직 진단이나 치

료법이 없는 질환에 대하여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나, 새로운 기능을 가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장에 나가서 연구능력을 키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 때 임상과 더불어 다양한 실험실 및 연구의 경험을 통해 관심이 있고, 질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임상능력 뿐 아니라 과학자로서 의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의과학연구소의 단기, 혹은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단기적인 목표는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의과학의 발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동연구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융합연구라는 것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나아가 의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분야와의 융합, 더 나아가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실제적인 진단 및 치료 기술, 치료제 개발,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마곡지구에는 다양한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마곡 벨리(m-valley)와 연계하여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연구 중심 병원으로 활성화됨과 더불어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는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Q**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변의 변화되는 환경,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 그리고 기존에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연구나 진로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랩 로테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수님들이나 병원에 있는 선배님들, 그리고 비의대 출신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고 함께 연구활동과 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학부생으로 졸업하기 전에 자신의 연구 활동을 통해 학술지에 논문 한 편 정도 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CI 등 해외 학술지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학술지(The Ewha Medical Journal, EMJ)에도 훌륭한 논문들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EMJ에 제 1저자로 논문을 실는 것을 목표로 해도 좋습니다. 연구는 융합의 시대이고, 의사는 과학자로서 그러한 융합연구를 주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의학과 관련된 학문, 시대적인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상 실습을 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배양하는 것과 더불어, 학문과 과학으로서의 의학을 관련 분야와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능력도 함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 기획기사 | 이화여대 의과대학 학부생 강승지, 엄서현 학생 SCIE급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왼쪽부터 강승지, 엄서현 학생〉

의학과 3학년 강승지, 엄서현 학생은 아시아 지역의 신경계 질환 질병부담 차이를 분석한 논문(Burden of neurological diseases in Asia from 1990 to 2019: A systematic analysis using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data)을 SCIE급 open access 의학저널인 'BMJ open'에 발표했다. 바쁜 와중에 방학을 반납하고 연구에 참여하여 논문을 집필한 강승지, 엄서현 학생을 만나 보았다.

**Q** 연구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저희는 본교의 랩 로테이션(Lab Ro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랩 로테이션은 방학 동안 자율적으로 특정 교수의 지도를 받아 100시간 이상 연구에 참여하고 수료증을 받는 프로그램인데요, 본과 2학년 때 짜인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하다 보니 관심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율적으로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방학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에 집필한 논문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일단 신경계 질환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정하던 중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신경계 질환의 질병 부담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신경계 질병 부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신경학적 질환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등 질병부담의 달라진 양상을 기술하는 객관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가별 의료 수요와 과제에 맞는 효과적인 의료 전략을 세우는 데 소중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질병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의학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논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저희는 아시아 54개국을 서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해 1990년과 2019년의 질병 부담을 비교 분석했고, 분석 결과 1990년에 비해 두 지역 모두 감염성 질환에 대한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을 합한 것으로 산출 값이 클수록 질병 부담이 크다) 값이 2019년에 감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2019년에는 치매와 편두통, 긴장형

두통과 같은 신경계 질환의 장애보정생존연수 값이 두 지역 모두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받는 고령 환자 수가 늘었고 그들의 질병 보유 기간도 길어진 반면 예방적 처치의 발달과 위생 증가의 영향으로 파상풍이나 뇌수막염, 뇌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장애보정생존연수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 또는 보람을 느꼈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A**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주로 맡아 한 작업은 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주제에 맞게 국가들을 선별하고 기준값을 고른 후 데이터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본과 1학년 '역학 및 의학통계' 수업을 통해 미가공 데이터를 의미있는 결과로 가공하는 과정을 배웠지만,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을 두었던 신경계 질환의 여러 지표를 분석하고 결과값을 비교해 논문을 작성하며 다시금 배운 지식을 떠올리고 적용해볼 수 있어 보람차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끼리 논문을 작성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며 도와주신 여러 교수님들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Q**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 해보고 싶은 연구가 생겼을까요?

**A** 저희가 1990년과 2019년의 질병부담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다음에는 코로나 이후의 자료도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네이처 메디슨 2월호를 보면 코로나 감염 이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 현재의 연구 자료와 코로나 이후의 신경계 질병 부담 증가 지표를 분석해보면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집필하면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더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질병부담에는 장애로 인한 손실 연수(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s)라는 지표가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이 연장됐다고 환자의 질병부담이 줄어든다 볼 수 없으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기간도 환자에게는 질병부담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습을 돌기 이전에 교과서로만 질병을 배울 때 환자들의 어려움은 활자에 담겨 있지 않으니 어떻게 질환을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에 치중하여 암기하였습니다. 실습을 돌며 환자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질병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이 많고 부담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경험과 지식 등 여러 방면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환자가 진단받은 질병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환자 자체를 다방면으로 이해하며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학과 4학년 방윤지 학생기자〉

# 특집기사



## 2022학년도 의과대학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White Coat Ceremony)



2022년 10월 14일(금) 오후 5시 마곡 의학관 계림홀에서 2022학년도 화이트코트 세레머니(White Coat Ceremony)가 개최되었다.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는 다음 학기에 병원으로 나가 환자를 앞에 서게 될 본과 2학년 학생들에게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혀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비의사로서 갖춰야 할 사명감·책임감·생명존중의 정신을 다짐하는 행사로서 2006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주요 내빈들과 학생들만 참석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교수와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해 주었다.

행사는 박미혜 학생부학장의 개회사와 이윤경 교목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환영사에서 "부레가 없는 상어가 부단히 노력하여 바다의 강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부단히 노력하면 그 노력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좋은 의료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였고, 유경하 의무부총장은 축사에서 "학생들이 입을 흰 가운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곧 임상실습현장에 나가게 될 학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진지한 충고를 말씀하였다. 성시열 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오랜 세월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지켜온 이화의 역사"를 통해 학생들이 이화의 소속으로서 자부심을 가져 달라는 언급을 하였다. 이어서 착의식이 시작되었는데, 하은희 의과대학장, 성시열 동창회장, 유경하 의무부총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을 비롯하여 총 7명의 의과대학 교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 주었다.

착의식 후에는 학생대표 문예진 학생의 주도로 학생의사 윤리선언문 선서가 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함께 "나는 이제 예비의사인 의학도로서 무절제한 생활을 자제하고 항상 단정한 복장과 순수한 마음으로 의업의 성스러운 전통 아래에서 나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예비의사로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다.

다음으로 의학과 2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내용과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을 함께 보았다. 이어서 박영미 교수와 의학과 2학년 권정현 학생의 피아노 연주,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의 축하영상, 그리고 이윤경 교목의 축도 순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화이트코트를 수여받은 의학과 2학년 학생 74명은 2023년부터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에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의학과 2학년 정상현 학생기자〉

## 2022년도 이화의대 '멘토-멘티의 날' 행사 개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2022년도 이화의대 '멘토-멘티의 날'이 11월 3일(목) 오후 6시30분에 의학관 3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의과대학장, 학생부학장, 학생부차장 및 주요보직 교수와 10명의 멘토, 24명의 멘티가 참석하여 멘토링의 첫 행사를 시작하였다.

위촉된 멘토는 성시열(성내과의원) 동창회장과 정수경(전 한독소아과, 윌리엄 스크랜튼상 수상), 임선영(임선영 산부인과의원), 정미라(대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태경(강동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춘원(박춘원 산부인과의원, 성남 시의사회 회장), 최영아(회복나눔네트워크 이사장/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배현아(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성유미(연세필 정신건강의학과) 동창이며, 안영호 교수(의학과 분자외과학교실)가 참석하였다.

하은희 의과대학 학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학생들과 멘토 선생님들의 만남을 환영하며, 돌이켜 보면 학창시절이 가장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지만 가장 힘들고, 어떻게 어려움을 묻고 해결할지 몰랐던 시간이었다. 오늘 인생의 좋은 인연이 될 멘토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시열 동창회장은 "모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하며, 먼 길을 와주신 동창들,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격려했다.

뒤이어 성유미 멘토의 "이제껏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멘토는 여성 예비의사끼리 모인 '이화의대'라는 집단의 특별함을 어떻게 하면 더욱 빛낼 수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였다.

이후 멘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멘토와 멘티들이 서로 소개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수 십 년간 봉사로 헌신한 정수경 멘토, 코오롱 선행 대상 외에도 글 쓰는 수필가로서도 활약하는 임선영 멘토, 멘티를 만나서 또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덕담을 한 정미라 멘토, 사명감을 가지고 이화의대 동창회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김태경 멘토와 박춘원 멘토, 노숙인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최영아 멘토, 의사 이후 법학박사를 받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배현아 멘토 등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선배들이 후배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을 전했다.

이에 멘토-멘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최지윤(의학과2) 학생은 "지금과 같은



교육을 받는 것 같아도 졸업 이후 얼마나 다채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느꼈고, 의사의 삶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꿈꾸고 열매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질 수 있었다"며 포부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다같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후배간의 활발한 교류를 다짐하며 '멘토 멘티의 날'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의학과 2학년 권나현 기자〉

### 메디칼타임즈 제2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이은서 학생 인터뷰



제2회 메디칼타임즈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 이은서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은서 학생은 '건강곤대'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수상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만두'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여 본인이 실제 겪은 경험담을 바탕으로 건강불감증의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뇌졸중, 디스크, 당뇨병 등 미리 대비해두면 좋을 질환들의 증상과 예방법까지 다루고 있다. 의대생 가운데 흔치 않은 뛰어난 그림 실력과 재미있는 스토리 구사 능력을 겸비한 이은서 학생을 직접 만나 인터뷰해보았다.

**Q** 안녕하세요, 우선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작품의 제목이 '건강곤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건강염려증이 있어서 작은 증상에도 혹여나 질병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곤 하는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다치거나 아팠을 때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안일해지기도 합니다. 이 웹툰도 저와 같이 건강에 둔감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툰 전체적으로는 건강곤대가 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Q** 웹툰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셨나요?

**A** 내용은 제가 건강에 둔감하게 생활하다 아팠던 사례 2개를 넣어줬다는 구상을 먼저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목을 "건강곤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꿀팁을 추가적으로 내용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와 같이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말고 사람들이 증상을 잘 모를 듯한,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질병들의 증상과 예방법을 세 가지로 구성하여 뒷부분에 덧붙였습니다.

**Q** 이번 공모전에 출품한 웹툰은 무엇을 이용하여 그렸나요?

**A** 아이패드를 이용해 클립스튜디오라는 앱으로 그렸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는 방법은 유튜브로 독학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니고, 웹툰 작가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해주는 10분 정도의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선 따고, 채색하고, 말풍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3단계로 나누어 그렸습니다.

**Q** 주인공 이름은 왜 만두인가요?

**A** 일단 내용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 닉네임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이 저보고 담섬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담섬은 독자들로 하여금 친숙하지 않을 것 같아 조금 더 친숙한 만두를 닉네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Q** 원래도 만화를 즐겨 그리는 편이셨나요?

**A** 원래도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그때그때 보는 만화에 따라 그림체는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번에 그린 만화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인물 그림을 즐겨 그리는 편입니다. 고등학생 때에는 아이패드 없이 종이와 펜이 많이 있었는데 패드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프로크리에이트(Procreate)라는 앱을 이용해 그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만화보다는 한장씩 즐겨 그리는 편입니다. 만화에는 제가 평소에 그리는 것처럼 섬세하게 작업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조금 더 간결하게 그렸습니다.

**Q** 1화의 내용이 정말 재미있어서 2화, 3화도 보고 싶는데 혹시 연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소재를 또 발견하면 연재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웹툰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주변에서 블로그 운영을 많이 추천해 주고 해서, 블로그에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 언론에 비친 동문소식



### 오혜숙 동문, 이대서울병원에서 '초대 사진전'



오혜숙 이화의료원발전후원회장(의정부시 오혜숙 산부인과원장, 전 이화의대동창회장)이 9월 20일 부터 한 달간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아트큐브에서 '이화의료원 초대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오혜숙 회장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서 그동안 국내외 촬영 대화와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 및 입선을 17번이나 차지했고,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어 온 중견 사진작가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의인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력도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현대그룹 달력 사진작가로, 2022년에는 모자이크 미니스트리(선교단체) 달력 사진작가로 선정될 만큼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모교 병원에서 초대전을 갖는 오혜숙 회장은 '감광(感光)을 통한 감탄, 감동, 감사'를 주제로 사진작가로 본격 활동한 최근 15년간의 주요 작품을 선보이며, 환자 진료에 지친 의료진들에게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치유의 힘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의학신문〉

### '자랑스런 이화여인 박에스터상'에 유신애 동문 (18회) 선정

#### 이화여대동창회, 2023년 3월 4일 제57차 정기총회서 시상식



이화여대동창회(회장 성시열)는 지난 11월 15일 '자랑스런 이화여인 박에스터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0회 수상자로 유신애(18회) 동문을 선정했다.

유신애 동문은 1944년 평안남도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6.25때 온 가족이 월남해 민족의 아픔을 늘 지냈다. 1969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 활동하다가 1980년 경희의대 소아과 교수로 귀

국해 한국어자의사회와 대한기독교여자의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별히 탈북 어린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후원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삼성의료원 국제진료소장 시절 국제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했고, 외국인 진료를 위한 소아과 Seoul Poly Clinic을 15년 동안 개원하면서, 수많은 외교사절 가족과 외국 상사 주재원 가족의 진료를 맡아 국위 선양에 이바지했다.

봉사 활동으로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동창에게 매년 1회 상패와 금메달을 수여한다. 지난 9월 오혜숙 (전)동창회장과 김윤자 대한기독교여자의사회장 추천을 받은 유신애 동문의 시상식은 2023년 3월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이화여대동창회 제57차 정기총회서 진행된다.

〈헬스이슈앤뉴스〉

### JW그룹, 제10회 성천상 시상식 개최... 최영아 센터장에 상패 수여

## 2022 성천상 시상식

THE 2022 JWGCHONGCHUN PRIZE



(왼쪽) 이종호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JW그룹 명예회장)과 수상자인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오른쪽)

JW그룹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9월 21일(수)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제10회 성천상 시상식을 열고,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에게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묵묵히 헌신하며 인류 복지 증진에 공헌한 참 의료인을 매년 1명씩 발굴하고 있다. 1995년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최영아 센터장은 '의사는 병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2001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학병원 교수직 제의를 사양, 노숙인 무료 진료에 매진했다. 2002년 최일도 목사와 함께 '다일천사병원'을 세우고 의무원장을 맡은 최영아 센터장은 병원 내 유일한 의사로서 병원 인근 사택에서 생활하며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인을 돌봤다. 이후에도 노숙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이어갔다.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진료협력센터장은 "성천상이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뉴스시〉

기부스토리

### 01 사랑이 충만한 기독 의사로서의 삶 (오혜숙 동창 의학 78졸)



△ 오혜숙 동창(의학 78졸)

의대동창회장과 의료발전추진회장을 역임하며 이화와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오혜숙 동창(의학 78졸)이 '이화 Medi-Healthcare클러스터 기금' 및 '오혜숙의학장학금' 각 5천만 원, 총 1억 원을 후원했다. 오 동창은 이번 기부를 포함하여 총 3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했다.

#### 이화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큰 사랑

오혜숙 동창에게 이화는 정신적 고향이자 든든한 배경이다. "이화를 통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기독 의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선한 정치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동창은 소유의 정도를 떠나 모두에게 나눔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과부의 두 렘돈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적게 가졌어도 정성껏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 시간, 물질과 재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재물로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올바르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동창은 이화의료원을 위한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늘 이화의 도약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설립 정신에 부합하도록 학교와 병원이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오혜숙 동창은 후배들에게 이타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화의 후배들이 기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음과 재능, 또 물질로 나누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겠지요. 지금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더라도 꿈을 크게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제공〉

### 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는 사단법인 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대표이사 임도선)으로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의 연구 증진을 위한 '의과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은 임도선 고려대학교 순환기내과 교수가 동남아시아 의료봉사 현장에서 느낀 해외 의료 지원 필요성을 토대로 2011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임도선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30명이 넘는 해외 심장 전문의를 초청해 최첨단 교육 활동을 펼쳐 왔다.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연구와 홍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외 의료 소외지역에 진료를 지원해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

했다. 이번 이화여대 연구 증진을 위한 기부는 좋은 일에 써달라는 여성 환자의 뜻을 통해 이뤄졌다. 이화여대 하은희 의과대학장이 여성 연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솔선해 기부하는 등 애쓰는 것을 알고 여성 의사들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부처를 정하게 됐다고 전해졌다. 이화여대는 이번 후원금으로 학술상을 제정해 교수들의 연구를 격려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은 "이번 기부가 신촌·마곡·목동을 잇는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화의 비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대병원이 더 좋은 의료와 연구, 사회 공헌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화와 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의 파트너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도선 대표이사도 "이화여대 교수들의 연구에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이화의 의료진들과 함께 해외 의료 봉사 및 연구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02 달란트는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탁 (피상순 동창 의학 84졸)



△ 피상순 동창(의학 84졸)

피상순 동창(의학 84졸)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이화 2030+발전기금' 5천만 원과 '의과대학발전기금' 5천만 원, 총 1억 원을 후원했다. 피 동창은 오랜 기간 이화에 각종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액수는 2억 7천만 원에 달한다.

#### 나눔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피상순 동창은 이화 재학 당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았다. 피 동창은 이화 재학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다고 회고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화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나눔이란 당연하게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되돌려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피 동창은 나눔에 대해 나누어 가질 때 오히려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피 동창의 특별한 나눔 철학에는 여러 은사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여고 시절의 교장선생님부터 직업보도실의 표경희 선생님, 대학교회의 김흥호 목사님, 지도교수 박민철 선생님, 그리고 법정스님까지. "교장선생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부여된 재능)는 각자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탁한 근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제게 위탁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대학교회 김흥호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를 열심히 들었지요. 김흥호 목사님은 나눔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해주셨습니다." 여러 선생님의 가르침 덕에 피 동창은 하나님이 위탁한 자신의 근거를 찾기 위해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제공〉

## 신임교원 인터뷰



김이준 교수  
환경의학교실

Q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의과대학 환경의학교실 조교수로 일하게 된 김이준입니다. 원래 3월부터 근무해야 했으나 당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화여대 의과대학 측의 배려로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Q 교수님께서 이화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저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 후 이대목동병원에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강사, 연구교수 등을 거쳐 다시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에서 임상교수, 그리고 현재는 이화여대 환경의학교실의 조교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이화여대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가장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이화에서 그동안의 제 경험과 앞으로의 도전을 후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인재 양성 및 좋은 융합 연구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 교수님께서 환경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원래 방사선종양학을 전공하였고, 지금까지 해 온 연구 분야도 암의 임상 치료 분야였습니다. 연구를 더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빅데이터, 유전체, 머신러닝 등을 익혀서 연구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분석기술이 의학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여러 병원과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중개의학 분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는 것에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새로운 연구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난 의과대학자들이 초반에는 일할 곳을 구하지 못해 고생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화여대 의과대학 환경의학교실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융합연구를 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의학 자체가 다른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오던 많은 연구들이 환경의학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의학이 필요로 하는 분석 도구들과 검증방법들이 모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환경의학연구에 이처럼 다양한 연구 방법들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Q 환경의학 중에서도 현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A 환경의학은 역학 분석과 통계 분석이 강점인, 고전적으로는 dry lab에 해당하는 과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열심히 반영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 경험을 쌓아온 빅데이터, 유전체, 인공지능 분야의 dry lab 부분과 융합하여 보다 양질의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현재 저는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wet lab을 환경의학교실에 구축하였습니다. 이렇

게 dry lab과 wet lab을 함께 하면서 연구 주제의 검증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Q 이화에 오신 소감이나 오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A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의 리모델링과 산학병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발전 양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제 할 일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병원을 보면서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진, 병원 직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학생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학교와 병원의 직원이 된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고마운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의학교실로 오게 되면서는 이대서울병원과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시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매우 훌륭한 연구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대학원 학생을 선발하고 함께 연구하고 연구실을 꾸려나가는 작업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멋진 병원과 의과대학을 만들고자 했던 선배들과 운영진들의 리더십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화의 일취월장하는 발전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Q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예과 때와 본과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도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끈대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 또 젊은 친구들이 예전의 저 때와는 달리 자기만의 생각들과 가치관이 뚜렷해서 오히려 저희 세대보다 나은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마디를 하자면, 예과생들은 예과 때만 놀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너무 귀담아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놀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예과로 돌아간다면 영어 공부와 프로그래밍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저의 선배들도 했던 조언입니다. 당시에는 흘러들었는데 정말 이것만 한 조언이 없었습니다. 본과생들에게는,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공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기 때문에 꼭 많은 도전을 해보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과, 수련병원, 해외의사고시, 원하는 직장, 직업, 창업 등,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많은 것에서 과감히 도전하면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더욱 좋은 plan B로 인도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과 동기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경험을 해보니 그러한 것 같고, 후배님들은 더욱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후배님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강한 멘탈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 퇴임교원 강연



**최규룡 교수**  
안과학교실

## “눈, 그리고 그런데”

최규룡 교수는 1976년 의학에 입문하여 47년 차인 2023년 2월에 퇴임 예정이다. 최 교수는 76학번 의예과로 입학하여 1982년에 졸업한 이화여대 의과대학 31회 졸업생이며, 이화여대 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안과학교실 전공의 수련 후 전문의를 취득하였다. 이후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를 거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미

국 UCLA 의과대학 Jules-Stein Eye Institute(JSEI) Glaucoma Research Fellow,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Harvard 의과대학 Mass. Eye&Ear Infirmary(MEEI) Glaucoma Research Fellow로 연수를 받았다. 최규룡 교수의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11월 28일 의과대학 채플에서 고별 강연이 진행되었다.

먼저 최 교수는 안과학교실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1952년 즈음에 6·25 전쟁 이후 전시에 학교 교육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시 김옥길 총장님의 권고에 의하여 고(故) 일본 이명수 교수님이 최초의 안과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의과대학 교실 체제에 안과학교실이 개설되어 전문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의사 교육이 시행될 때 안과학교실에서도 2022년 현재 창립 70주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1명 이상씩 여성 안과 전문의를 배출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금세기에 이르러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체제의 변화 및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이에 대한 수요와 필요의 증가에 따라, 의학 교육과 이와 동반되는 부속 수련병원, 의료원 체제에도 질적, 양적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한 “여성” 교육을 전담하는 의대 부속 병원 체제에도 발맞추어 확장 발전이 요구됨에 따라 부속 동대문병원에 이어서 1993년 9월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이 개원하였다. 이때에도 꼭 30년 후 지금 현재 이대 부속 서울병원이 개원할 때처럼 소속 교수 및 진료 담당 부서의 구성원들에게는 당직 및 업무량에 있어서 여러 만만치 않은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의대 “교수”로서의 신분보다는 병원 진료 “의사”로서의 역할과 필요가 우선하여 나타난 현상인 한편 교수 “업적”과 “연구역량”에 따른 평가는 의대 교수라 하여 하등 유리할 리 없는 연구 환경과는 별개의 일이었다고 기억하였다.

또한 30년간 모교 부속 안과학교실 교수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첫째로, 6년 12학기 동안 한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은 본교 교실 제자를 안과학교실 제6대 주임 교수로 세울 수 있었던 일과 전공의 정원수를 두 배로 증원한 것, 두번째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이대목동병원 안과가 의료원 가운데 찾아오기도 어렵고 주변에 훨씬 장비와 설비가 월등한 안과 병원들이 많은데도 좁은 골목길 돌아 안과를 찾아와 치유의 기쁨과, 또 한편 그렇지 못한 좌절도 함께 했던 수많은 환자, 보호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76학번 의학에 입문한 이래 참으로 신묘막측한 (생명과 빛, 눈의 어원은 동일하다)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의 질서와 생명과 빛, 진리를 아우르는, 평생을 진력하여도 다함이 없는 의학이라는 학문하는 즐거움이었다고 전하였다.

후학들에게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고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전도서 12장 1

절)는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에스겔 34장 31절의 구절을 통해 “내 양(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곧 내 초장의 양(나의 동산이었던 이화) 너희는 사람이요(너는 의사직분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그 의사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화가 붙들어야 하는 사명에 대해 말씀을 권고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의예과 시절 김홍호 교목님께 배웠던 동학 최제우의 우음2 偶吟 동경대전 162.11.30 ~ 43절의 내용을 축복의 노래로 47년간 이화의 이름으로 지내온 시절을 마무리하며 강연을 마쳤다.

風過雨過枝 (바람 지나고 비 지나간 가지에)  
風雨霜雪來 (바람, 비, 서리, 눈이 몰아쳐)  
風雨霜雪去後 (바람, 비, 서리, 눈이 다 지나간 후)  
一樹花發世春 (한 나무에 꽃이 피어 그 봄이 영원하리라)

“이화는 빛나리 우리 이화!”



〈의예과 2학년 이예린 학생기자〉

# 퇴임교원 인터뷰



**심봉석 교수**  
비뇨기과학교실

심봉석 교수는 1986년 비뇨기과 전문의 후 현재까지, 전립선 질환 및 배뇨장애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1990년 이대동대문병원에 처음 부임한 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화에 몸담아 왔다. 2023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비뇨기과학교실 심봉석 교수를 만나, 퇴임소감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이화를 떠나게 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화에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면서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 비뇨기과 전문의, 병원 경영자 등 내부 활동과 상임이사, 회장 등 학회 활동 그리고 의학 칼럼니스트, 방송인, 작가 등 사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화의 교수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화가 저에게 준 고맙고도 값진 선물입니다. 인생을 이화와 함께 살아올 수 있었고 이화에서 정년을 맞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Q** 30년 넘게 의사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계셨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말씀해주시 수 있나요?

**A** 모든 교수들처럼 첫 강의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시 의학과 2학년 강의가 신촌캠퍼스 과학관에서 있었는데, 강의실 문을 들어가면서 우리 이화의대 학생들과 첫 만남에서 느꼈던 설렘의 순간이 기억납니다. 의사로서는 동대문병원, 목동병원 그리고 현재의 서울병원 모두에서 근무한 몇 안 되는 교수들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60여 년 역사의 동대문병원에서 마지막 까지 근무하다가 목동병원으로 통합하여 합류하였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70 주소의 동대문병원은 지금의 이화의료원을 있게 한, 이화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Q** 교수님은 199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대(UCSF)로, 2004년에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의대로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미국으로 연수를 2번이나 다녀오셨는데 우리나라 의학계와 미국 의학계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한국 의료의 질적 수준은 미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병원 내 문화적 차이는 90년대 말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겉니다. UCSF에서 연수를 할 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컨퍼런스 시간에 교수들과 전공의가 격의 없이 토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불량스러울(?) 태도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자신의 소견을 끝까지 주장하는 전공의의 모습에 내가 오히려 걱정스럽기까지 했지요. 나중에 귀국해서 우리 병원에도 이런 문화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Q** 교수님은 2010년에 영국 국제인명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에 올해의 의학자로 선정되시는 등 여러 인명사전에 명의(名醫)로 등재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어떠한 활동이나 연구가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A** 2000년이 시작되면서 의료기기의 발전과 함께 비뇨기과 분야에서도 새로운 의료기기들을 이용하는 내비뇨기과학(endo-urology)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저 전립선절제술(Laser Ablation of Prostate), 비디오 전립선절제술 (Video guided TURP)은 세계 석학들과 함께 초창기에 시행한 멤버였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의 몇 가지 최초의 의학적 시술과 업적을 덕분에 여러 인명사전에서 명의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1986년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비뇨기 관련 서적도 집필하셨는데, 비뇨기과를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외과 계열도 하고 싶고 내과 분야도 관심이 있던 차에 양측 모두의 요소를 가진 듯 보였던 전문과가 바로 비뇨기과였죠. 그런데 막상 비뇨기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일선에서 임상진료를 시작해보니까 비뇨기과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많았습니다. 소변의 불편함은 누구에게 얘기도 못 하는 부끄러운 일이고, 비뇨기과는 성병을 주로 보는 남성들의 진료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매스컴에 글을 쓰다 보니까 의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게 되었고, 건강상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에 재직하는 동안 비뇨기과는 비뇨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로봇수술 등 첨단의학을 수행하는 전문 진료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Q** 퇴임 후 계획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비뇨의학의 대중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의학칼럼 집필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여력이 되면 30여년 간의 경험을 집대성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을 출간해서 의학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이대서울병원에서 개설한 소변건강연구소(Urine Health Lab.)를 좀 더 활성화하여, 소변 건강에 대한 인문학적 컨텐츠를 개발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비뇨의학의 생활 밀착형 진료방식을 체계화하여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의학을 배우면서 이제 의사 사회에 한 발을 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대의학은 의사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의학은 과학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의학의 전 분야에서 의료기구와 정보통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료기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면 IT 지식이 필수입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준비하는 시기가 의과대학 학창시절입니다.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는 어떠한 것든 낭비가 아닙니다. 의과대학 과정에 충실하되, 세상에 대한 바라봄을 함께 하세요. 의학적 가치의 완성은 결국 우리 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하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학과 2학년 정상현 학생기자〉

# 언론에 비친 교수소식



## 하은희 이화여대 학장 "4차 바이오혁명 이끌 의사·의과학자 양성 역점"

**"의대 효율적 조직 운영으로 연구 활성화 추진"**  
**"이화의학교육센터 설립해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  
**"마곡 벨리서 연구 주도 위해 의료기술융합대학원 신설 계획"**  
**"신촌캠퍼스, 목동·서울병원과 이화 첨단융복합**  
**메디클러스터 한 축 담당"**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은 국내 의대 중 최초로 개설된 것으로, 의대 졸업생이 부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가 될 것이다"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환경의학 교실 교수)은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바이오혁명을 이끌 의사·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연구 활성화 △의학교육체계 선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2021년 8월 학장 취임 후 의대 조직 효율화를 마친 하은희 학장은 편지 형식의 소식지를 통해 학생, 교수, 동문, 학부모들과 의대 발전을 위한 소통을 시작했다. 하 학장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 이화 첨단융복합 메디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이화의학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이화의학교육센터를 설립하며 "대학 내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 개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학생 역량 개발을 위해 만들었다"며 "센터는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융합연구 시대를 이끌 △빅데이터·인공지능(AI) △줄기세포·재생의료 △웰에이징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연구소 신설하고 의과학연구소 산하 연구센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이화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하은희 학장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동문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에 나섰다. "씨젠, SCL 헬스케어 등 이화의대를 졸업한 동문 기업인들과 졸업생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수십억원 대의 기금이 마련됐다"며 "기금을 활용해 의대 내 센터를 설립하고 학술연구 기금, 학술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 학장은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미래 준비, 이화 의료(Future Ready, Ewha Medicine)' 슬로건을 소개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이화여대 학술상'을 제정 소식을 알렸다. "슬로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의학 교육 패러다임을 이끄는 의사·의과학자 양성의 요람이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심혈관건강증진연구원에서 1억원 규모의 발전 기금을 후원하기로 해, 이를 의학 연구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학술상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학장은 임기 중에 '의료기술융합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의대가 있는 서울 마곡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연구소가 많은 곳으로,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 첨단 기업과 연계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며 "지속 가능한 메디·헬스 클러스터를 위해 산학연병 연구를 주도하는 특수대학원인 '의료기술융합대학원(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학부생들에게 최근 바이오산업 트렌드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었다. 하은희 학장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학과 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며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은 국내 의대 중 최초로 개설된 것으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형태로 이수하는 것으로 미래 유망분야인 컴퓨터의학을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 신설이다. 하 학장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학과 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며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은 국내 의대 중 최초로 개설된 것으로,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형태로 이수하는 것으로 미래 유망분야인 컴퓨터의학을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화의대는 8월 학부 과정에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의료혁신과 여성벤처' 과목을 개설했다. 하 학장은 "창업한 교수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줘 의료 분야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점이 없지만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 구글, 아마존, 카카오 관계자들 강사로 모시고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을 풀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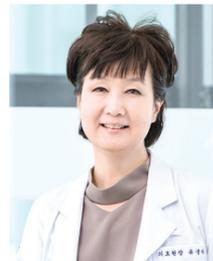
하 학장은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이화여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 클러스터' 구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육과 연구는 병원 임상과 뿔 수 없어 2개 부속병원의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보건의로 패러다임과 바이오헬스산업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토대 구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클러스터를 통해 융복합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보건의료산업의 국제적 허브를 구축하고 앞으로 본교 R&D(연구개발) 총괄 기획단과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 의학과 유경하 교수(이화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 선출

**"회원 기관들과 소통 통해, 코로나 극복 최선 다할 것"**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 간 회장직 수행**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이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 원장은 2022년 9월 1일부터 3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협의회를 이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8월 27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22년도 임시총회를 열어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15대 회장으로 선출된 유경하 원장은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이화의료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 총무 이사도 활동 중이며, 김영모 현 협의회장(인하대의료원장) 뒤를 이어 2022년 9월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유경하 신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립대의료원을 대표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회원 기관 의견을 잘 경청하고 소통하며 중지를 모아 신중 감염병 국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과 의료계 현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사

립대의료원 역할을 고민해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사립대의료원의 건전한 발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됐으며, 총 25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화의료원〉

## 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교수, 모체태아학회 회장 선출



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가 제 28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에 선출됐다. 김영주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다.

1994년 대한태아의학회로 출범한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임신부와 태아의학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학회들과의 유대증진을 통해 대한모체태아의학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고위험 임신부 관리와 태아치로 분야의 학회다. 김영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 고위험산모센터장, 조산예방치료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270여 편의 논문 발표 및 30여개의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김영주 교수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임신부와 태아 건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겠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

## 비뇨의학교실 윤하나 교수,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 선정

**"국내 1호 女비뇨의학과 전문의로 학문 발전 공로 인정"**



비뇨의학과학교실 윤하나 교수(이대서울병원)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74차 대한비뇨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2022년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로 선정됐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윤하나 교수는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며, 여성 비뇨의학과 회원에 귀감이 되기에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로 선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윤하나 교수는 1994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국내 1호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02년부터 이화여대 의대 비뇨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인 윤 교수는 요실금, 간질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와 여성 성기능 장애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한 이대서울병원 소변건강연구소(소장 심봉석)의 부소장으로 비뇨의학 관련 임상 지식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국제교류이사, 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총무이사, IC urology 편집위원, 대한성학회 이사 등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

윤하나 교수는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로 선정돼 영광이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남성 환자만 진료한다는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 성과를 내고 활약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화의료원〉

## 산부인과학교실 정경아 교수(이대목동병원),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최우수상 수상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 정경아 로봇수술센터장이 엠베서더 풀만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32차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Surgical Film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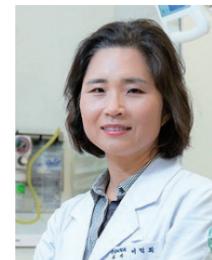
정경아 센터장은 '로봇 자궁근종절제술에서 다빈치 SP 시스템의 적용' 연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결과를 근거로 첨단수술 기법이 축적된 경험을 수술영상으로 발표했다.

다빈치 SP는 배꼽 한 곳을 이용해 수술하는 로봇 단일공 수술에 특화된 최신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정경아 센터장은 "자궁근종 수술이 필요한 젊은 여성 환자들은 늘고 있어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자궁근종절제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로봇 단일공 수술시 예후가 좋아서 수술 노하우를 교육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경아 센터장은 산부인과 생식내분비 분야 전문의로 이대목동병원에서 교육수련부장, 로봇수술센터장, 가임력보존센터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궁근종, 자궁내막중 환자들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로봇수술의 세계적 권위자로 로봇수술 트레이닝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의학신문〉

## 응급의학교실 이덕희 교수(이대목동병원),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은 이덕희 교수(응급의학과)가 서울 서남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주최로 열린 '제 11차 서울 국제 응급의료 심포지엄'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덕희 교수가 서울 서남 권역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및 재난거점병원 책임자로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했고, 장기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진료와 진료체계 마련

에 기여했으며 서울 양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구급 품질 향상 및 전문능력향상에 공헌해 표창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이덕희 교수는 "재난응급상황 발생시 이대목동병원은 서울 서남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발생을 대비해 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한국형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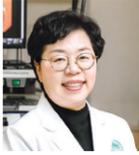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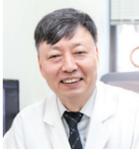
# 교수 소식



## 이화여대 의과대학 제1회 이화의학술상 수상자

학 과	성 명
의학과(내과학교실)	강덕희
의학과(내과학교실)	김휘영
의학과(신경과학교실)	송태진

## 퇴임교수명단

성 명	학 과	퇴직일	성 명	학 과	퇴직일
 박혜영	의학과 (생화학교실)	2023.02.28.	 서정완	의학과 (소아과학교실)	2023.02.28.
 심봉석	의학과 (비뇨의학교실)	2023.02.28.	 정락경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교실)	2023.02.28.
 최규룡	의학과 (안과학교실)	2023.02.28.	 한재진	의학과 (흉부외과학교실)	2023.02.28.

## 신임교수 명단

학 과	성 명	임용일
의학과(환경의학교실)	김이준	2022.09.01.

## 의과대학 기금 안내 및 약정현황 명단

### 1. 의과대학 발전기금 (2022.07.01.~2022.12.31. 기준 약정일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관련 사업,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김진주 (의학72졸)	3,000,000	이정화 (의학72졸)	3,000,000
손경희 (의학72졸)	3,000,000	이혜경 (의학72졸)	5,000,000
신위태 (의학72졸)	3,000,000	정영진 (의학72졸)	5,000,000
오영욱 (의학72졸)	3,000,000	최재화 (의학72졸)	5,000,000
우경숙 (의학72졸)	5,000,000	허창규 (의학72졸)	3,000,000
유지정 (의학72졸)	3,000,000	이남희(의학 79졸)	5,000,000
이예경 (의학72졸)	5,000,000	김경우 (의학72졸)	1,000,000
이영주 (의학72졸)	10,000,000	정아영(의학 01졸)	1,000,000
이영혜 (의학72졸)	5,000,000		

### 2. 백분일의나눔장학금 (2022.07.01.~2022.12.31. 기준 약정일순)

의과대학 동창들이 각자 수입의 백분의 일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자는 취지로 모금한 장학금입니다. 의과대학동창회에서는 매해 연말, 200여 명의 회원들이 다달이 후원한 장학금 약 1억 2000만원을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규희(의학 90졸), 박미향(의학 90졸), 김병선(의학 84졸), 윤석완(의학 76졸), 피상순(의학 84졸), 김성희(의학 87졸), 박원아(의학 90졸), 강예성(의학 93졸), 고은희(의학 78졸), 권계숙(의학 90졸), 권정미(의학 99졸), 김지나(이화가족), 김경효(의학 83졸), 김광주(의학 84졸), 김금미(의학 89졸), 김문정(의학 95졸), 김보경(의학 92졸), 김수경(의학 93졸), 김연신(의학 82졸), 김명선(의학 94졸), 김영주(의학 84졸), 김예미(의학과 교수), 김예진(의학 93졸), 김우선(의학 90졸), 김윤희(의학 78졸), 김자영(의학 84졸), 김정숙(의학 83졸), 김종원(의학 79졸), 김지영(의학 89졸), 김지호(의학 89졸), 김진희(의학 61졸), 김태경(의학 84졸), 김태연(의학 05졸), 김태임(의학 74졸), 김한울(의학 08졸), 김현영(의학 78졸), 김현화(의학 81졸), 김해옥(의학 84졸), 김홍희(의학 88졸), 김화숙(의학 71졸), 남은미(의학과 교수), 맹신숙(의학 92졸), 문경원(의학 02졸), 문규원(이화가족), 문용자(의학 61졸), 문인숙(의학 78졸), 민정혜(의학 93졸), 박경숙(의학 86졸), 박경화(의학 84졸), 박미연(의학 89졸), 박미혜(의학과 교수), 박보영(의학과 교수), 박선숙(의학 74졸), 박성희(의학 82졸), 박승희(의학 89졸), 박연희(의학 93졸), 박은미(의학과 교수), 박은애(의학과 교수), 박재욱(의학 75졸), 박정선(의학 78졸), 박준범(의학

과 교수), 박진(의학과 09졸), 박혜숙(의학과 교수), 박혜영(의학과 교수), 박혜영(의학 89졸), 방문혜(의학 84졸), 배기선(의학 99졸), 배순희(의학 75졸), 배현아(법학과 교수), 백세연(의학 93졸), 백승연(의학과 명예교수), 백승희(의학 82졸), 백혜승(의학 89졸), 백희정(의학과 교수), 서동해(의학 95졸), 서란(의학 82졸), 서시정(의전원 13졸), 서의정(의전원 15졸), 서정원(의학과 교수), 서정은(의학 09졸), 서한나(의학 10졸), 성시열(의학 81졸), 손현주(의학 84졸), 손희정(의학 89졸), 송선희(의학 77졸), 송현주(의학 00졸), 신수아(의학 93졸), 신지아(의학과 교수), 신혜원(의학 78졸), 신화자(의학 78졸), 심소연(의학과 교수), 심현(의학 80졸), 안영호(의학과 교수), 안혜선(의학 84졸), 양나래(의학 07졸), 양미혜(의학 82졸), 오양자(의학 65졸), 오혜숙(의학 78졸), 우명숙(의학 71졸), 우복희(의학과 명예교수), 우소연(의학과 교수), 우재희(의학 07졸), 원혜성(의학 90졸), 유경애(의학 97졸), 유경해(의학과 교수), 유금혜(의학 00졸), 유동원(의학 84졸), 유박영(의학 74졸), 유시현(의학 95졸), 유신애(의학 69졸), 유재섭(의학 84졸), 윤명인(의학 78졸), 윤석애(의학 71졸), 윤소윤(의학 07졸), 윤수진(의학 90졸), 윤혜원(의학 80졸), 이경숙(의학 82졸), 이국희(의학 89졸), 이귀용(의학과 명예교수), 이남경(의학 89졸), 이남희(의학 79졸), 이영아(의학과 교수), 이명희(의학 90졸), 이미애(의학과 교수), 이순남(의학과 명예교수), 이순재(의학 75졸), 이승희(의학 84졸), 이연주(의학 90졸), 이영은(의학 90졸), 이예경(의학 82졸), 이용주(의학 77졸), 이윤하(의학 91졸), 이은엽(의학 75졸), 이재욱(의학 79졸), 이재욱(의학 76졸), 이재현(의학 80졸), 이정엽(의학 82졸), 이정원(의학과 교수), 이종민(의학 80졸), 이지희(의학과 교수), 이지희(의학 90졸), 이진숙(의학 78졸), 이향운(의학과 교수), 이현주(의학과 박사 10졸), 이훈주(의학 07졸), 임석아(의학 91졸), 임선영(의학 82졸), 임원정(의학과 교수), 장은경(의학 90졸), 장혜숙(의학 75졸), 전영미(의학 82졸), 전해진(의학 05졸), 정미경(의학 84졸), 정민경(의학과 교수), 정성애(의학과 교수), 정성철(의학과 교수), 정수경(의학 97졸), 정연정(의학 90졸), 정윤희(의학 74졸), 정은숙(의학 84졸), 정은주(의학 90졸), 장인숙(의학 77졸), 정주혜(의학 97졸), 정지아(의학 93졸), 정혜선(의학과 교수), 정호인(의학 90졸), 조기영(의학 02졸), 조지희(의학 88졸), 조혜경(의학 04졸), 주문희(의학 70졸), 주미련(의학 74졸), 주재본(의학 77졸), 차순자(의학 60졸), 채설아(의학 96졸), 최옥경(의학 90졸), 최원주(의학 79졸), 최윤희(의학과 교수), 최은경(의학 89졸), 최의숙(의학 77졸), 최지하(의학과 교수), 최현주(의학 87졸), 최혜영(의학과 교수), 하은희(의학과 교수), 한경원(의학 84졸), 한기정(의학 89졸), 한승혜(의학 96졸), 한지윤(의학 75졸), 허금희(의학 89졸), 허양임(의학 05졸), 허정원(의학과 교수), 홍기숙(의학과 명예교수), 황은미(의학 01졸)

### 3. 기타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2022.07.01.~2022.12.31. 기준 약정일순)

기금 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발전기금	북미주의대동창회 연구지원 기금	이화국제재단	32,179,800원	
	생화학교실 발전기금	박혜영(의학과 교수)	20,000,000원	
	의과대학 교육인프라구축기금	권복규(의학과 교수)	500,000원	
	의과대학사랑실천기금	이제훈	4,000,000원	
		강미정(의학 92졸)	3,000,000원	
		권향미(소아청소년과 의학 92졸)	500,000원	
		눈에미소인과	1,000,000원	
		미소아청소년과의원 (의학 92졸)	300,000원	
		조지연 산부인과 (의학 92졸)	1,000,000원	
		곽정아(의학 92졸)	1,000,000원	
장학기금		곽현주(의학 92졸)	1,000,000원	
		김보경(의학 92졸)	1,500,000원	
		김승정(의학과 교수)	2,000,000원	
		김아영(의학 92졸)	300,000원	
		김영민(의학 92졸)	500,000원	
		김은아(의학 92졸)	500,000원	
		김지은(의학 92졸)	1,000,000원	
		김진(의학 92졸)	2,000,000원	
		남미현(의학 92졸)	1,000,000원	
		맹신숙(의학 92졸)	2,000,000원	
		문선미(의학 92졸)	1,000,000원	
		박혜정(의학 92졸)	1,000,000원	
		송지숙(의학 92졸)	500,000원	
		신동희(의학 92졸)	1,000,000원	
		신미승(의학 92졸)	1,000,000원	
		심기남(의학과 교수)	3,000,000원	
	발전기금	이화여대연구기금 (Ewha Medical Research Fund)		
		유정현(의학 92졸)		2,000,000원
		유혜경(의학 92졸)		500,000원
		윤희자(의학 92졸)		500,000원
		이영아(의학과 교수)		2,000,000원
		이민재(의학 92졸)		1,000,000원
		이영욱(의학 92졸)		1,000,000원
		이은정(의학 92졸)		3,000,000원
		이지애(의학 92졸)		500,000원
이현경(의학 92졸)			10,400,000원	
임금애(의학 92졸)			2,000,000원	
전화정(의학 92졸)			500,000원	
정명은(의학 92졸)			500,000원	
정혜경(의학과 교수)			2,000,000원	
최유원(의학과 교수)			2,000,000원	
최희령(의학 92졸)			500,000원	
허경(의학 92졸)			500,000원	
허정원(의학과 교수)			2,000,000원	
현태영(의학 92졸)			2,000,000원	
황수자(의학 92졸)			1,000,000원	
송태진(의학과 교수)			2,500,000원	
최희희(의학 88졸)			3,000,000원	
김해자(의학 65졸)			2,581,390원	
이덕희(의학 70졸)			64,534,765원	
정창자(의학 69졸)			2,581,390원	
이화여대지 발전기금 (The Ewha Medical Journal Fund)				
	한국위너스약품	1,000,000원		
	메디파인코퍼레이션	4,000,000원		
	박영량	3,000,000원		
	이정준	12,000,000원		
발전기금	정형외과학교실기금			
	Drs. Bumsun & Hyang Won Lee Medical Scholarship	Carol M. Lee	19,307,880원	
	Drs. Moonja Chung & Chanjong Park Medical Fund	정문자(의학 66졸)	32,179,800원	
	Heeyul Lee Cho Scholarship	이화국제재단	6,435,980원	
	Hwaja Lee Rhee Scholarship	이화자(의학 65졸)	19,307,880원	
	John D. Yun Scholarship	이화국제재단	3,218,000원	
	Joulja Juliet Kim Song Scholarship	Joulja Juliet Kim Song (의학 65졸)	12,871,960원	
	Sunwha Hong Scholarship	홍선화(의학 65졸)	19,307,880원	
	강일화추모장학금	Young Moo Lee (故 강일희(의학 66졸) 夫)	14,036,273원	
	김정혜장학금	김정혜(의학 70졸)	314,412,508원	
	연구활동장려장학금	윤주천(의학과 교수)	7,800,000원	
	연희장학금	주문희(의학 70졸)	12,000,000원	
	의과대학대학원장학금		배순희(의학 75졸)	6,000,000원
			이화웃는세상의원	18,000,000원
			오혜숙(의학 78졸)	12,000,000원
			임선영산부인과	6,000,000원
			성시열(의학 81졸)	12,000,000원
			박혜영(의학 89졸)	60,000,000원
			윤석완(의학 76졸)	12,000,000원
			박미혜(의학과 교수)	10,000,000원
			피상순(의학 84졸)	6,000,000원
			심현(의학 80졸)	12,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김희숙)장학금	김희숙(의학 71졸)	10,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피상순)장학금	피상순(의학 84졸)	5,000,000원
		의과대학동창회(한영자)장학금	한영자(의학 62졸)	3,000,000원
의과대학장학금			박혜영(의학과 교수)	10,000,000원
			채음플러스의원 별내	1,000,000원

## 의과대학 발전기금 안내

여러분의 후원은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세계적인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의 기틀이 될 '연구기금'과 우수 여성 의과학자 및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줄 '장학기금', 첨단 의학교육환경을 위한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위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발전기금 후원자 예우

#### 공통 예우

- 후원 감사선물 및 카드 증정
- 모바일 뉴스레터/생일축하카드 발송
- 기부자 명예의 전당(디지털월)에 이름남김
- 이화달력 및 성탄카드 발송
- 이화소식/대외협력처 연간보고서 발송
- 후원자 ID카드 발급: 교내기관 및 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이화여대 의대 발전기금

- 교내시설: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샵(5%), 박물관 기념품샵(10%), E-feel(5%), 도예연구소 작품(10%), 출판문화원 도서(5~10%), 이화인의 나눔가게(10%)
- 편의시설: 닥터로빈(5%), 교보문고(5%), 구내안경점(10~20%), 뚜레쥬르(10%), 카페 블루팻(5%)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77-2927,3969 **Fax** (02)392-3473 **Homepage** <http://giving.ewha.ac.kr>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6986-6013, 6014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mailto: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이령아(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심성신(정보관리차장), 이호진(의과대학 행정실)

**학생기자단** 권나현(의학과 2학년), 방윤지(의학과 4학년), 이예린(의예과 2학년), 정상현(의학과 2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식을 우편 또는 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ediewha@ewha.ac.kr](mailto:mediewha@ewha.ac.kr) **Tel:** 02.6986.6007



이화여대 학생홍보단 이의랑